

문예 향연으로 사회에 따스함과 행복감 선물

— 연변조선족자치주로간부대학 민악단 연길시사회복지원 찾아 음악회 펼쳐

3월 14일, 연변조선족자치주로간부대학 민악단에서는 연길시사회복지리원을 찾아 ‘진달래 피어나는 곳’ 음악회를 펼침으로써 복지원 노인들에게 풍성하고 의미 있는 문예의 향연을 선물했다.

공연은 <나의 조국, 아리랑>과 남성이중창 <군인의 본색>으로 시작되었다. 감미로운 멜로디는 순식간에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어서 경쾌한 무용 <웃을 수 없는 그날>은 노인들에게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선물했다. 노인들은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며 즐거운 문화공연의 분위기 속에 빠져들었다. 노래 <모든 것을 당에 바쳐>, <봄날의 이야기>는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켜 끌어올렸다.

현장에서 노인들과 복지원의 사업

일군들도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겼다. 장내는 시종 화목하고 따스한 분위기로 흘러넘쳤다. “이번 문예공연은 정말 잘 조직되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따스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한 노인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이번 문예공연은 다양한 형식과 알찬 내용으로 단순한 문예의 향연을 넘어 마음을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노인들은 문예공연의 즐거움 속에서 사회의 따뜻함과 관심을 느꼈다.

연길시사회복지원 원장 장영은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원에서는 노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만년에 행복하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안상근기자



▲ 음악회 무대의 한 장면

홍산문화 유적 추가 발견, 고고학적 가치 더해

아직 꽃샘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3월의 룡녕성 룡원(凌源)시, 고고학자들이 산과 들에서 산바람을 맞으며 조사 작업에 한창이다.

얼마전 룡녕성문물고고연구원은 룡원시 무백정(无白丁) 유적단지에서 홍산(红山) 문화의 옛 흔적을 발견했다. 홍산문명 진화의 증거가 추가되었음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무백정 유적단지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약 42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무백정 유적단지에 홍산문화 유적지 및 적석총(积石冢) 31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각기 다른 시기의 도자기 조각, 석제품 등이 발견되었다.



▲ 홍산문화 유적지에서 출토된 옥룡

우하량(牛河梁) 홍산문화 유적지는 20세기 세계 고고학의 대발견으로 중요한 리정표를 세웠으며 ‘100년 100대 고고학 발견’에도 선정되었다.

지난 1981년에 발견된 이래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196점에 달하는 홍산 시기 옥기를 비롯해 채색토기, 석기, 적석총 등을 발굴했다.

우하량 홍산문화 유적지에 대해 우하량유적박물관 관장 왕현은은 5,000여년전 홍산 선조들이 조상과 천지를 섬기기 위해 제사를 지냈던 장소라고 설명했다.

홍산문화는 5,000~6,000년전 우리나라 동북지역 남서부에서 발원된 고고학 문화로 분포 면적은 20만평방키로메터에 달한다.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세계고고연구실 주임 가소빙은 내몽골, 룡녕, 하북 등 지역에서의 연구를 통해 홍산문명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점차 중원지역으로 옮겨가 진화하는 연속성과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신화넷

애니메이션 젊은 관객층 크게 늘어난 비결은?

한때 일본과 미국 애니메이션에 밀려났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국내외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개선된 스토리텔링(讲故事), 향상된 시각 효과,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완벽한 융합이 국내외 관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청년보》가 최근 7,232명의 대학생を対象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64%가 인기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와 작품을 적극 시청하고 30.35%는 매우 새로운 개봉작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심이 《나타 2》를 비롯한 주요 흥행작의 성공에 반영되었다는 분석이다. 《나타 2》의 흥행 수익은 150억 8,000만원을 넘어섰고 글로벌 영화 흥행 수입 5위에 올랐다. 글로벌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우리나라

가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다.

다수의 응답자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인기 비결로 전통문화 요소와 현대 영화 기법의 성공적인 융합을 꼽았다. 실제로 응답자의 81.1%는 이를 국내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진 핵심 요인이라고 답했다.

무한대학 재학생 황자이는 “청춘 로맨스 위주의 일본 애니메이션과 개인영웅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애니메이션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발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든 현대든, 신화든 현실이든 중국 문화가 풍부한 소재를 제공해 창의적인 령감과 준비된 시장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객의 공감을 얻는 작품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신화넷



▲ 애니메이션 《나타 2》의 문화 창의 제품들

서부공항박물관과 청동타악기 ‘진공박’

세계 최초 현지 문화유산 전시공항내 박물관인 ‘서부공항박물관’이 일전 서안 함양국제공항 T5 터미널에서 정식 개관되었다.

현재 박물관내에서 진행중인 ‘서안 함양국제공항 출토 문화유산과 고대 장안’ 주제 전시회는 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유산을 토대로 실크로드 무역과 당나라 수도 장안의 번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은 특별전시관에 전시된 국가 1급 문화유산인 춘추시대 청동타악기 진공박(秦公栻)과 관람객들.

/ 중국넷

300년 명맥 이어온 사천 ‘피영’ 예술

우리나라의 민간 전통 예술 ‘피영극’(皮影戏, 그림자극)은 회화, 조각, 설장, 희곡 등이 결합된 것으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사천성 랑중(阆中)시의 피영극 예술가들은 이 전통 예술을 대대로 전하고 있다. 피영은 피영극에 사용되는 인형 도구를 말한다. 랑중 피영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소가죽이나 종이 등이다. 얼굴 분장과 의복, 장신구는 대부분 사천 지방의 전통극 ‘천극’(川剧)을 모방하며 창법은 전통 천극과 유사하다. 대표적인 것은 사천 북부(천북)의 ‘왕피영’으로 꼽힌다.

청나라 강희년간에 창립된 천북 ‘왕피영’은 3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1965년생인 왕표는 천북 ‘왕피영’의 7대 전승자이자 사천 피영극의 국가급 대표 전승자이다.

왕표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가 창립한 ‘사천천북피영극예술단’의 공연 종목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단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예술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동남아 등지의 3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도 공연하고 있다. 왕표는 여러 대학과 협력해 피영극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관련 지식도 전수하고 있다.

2018년 왕표가 자금을 모아 랑중에 건립한 ‘사천왕피영예술박물관’에는 5만여점의 피영극 작품과 수백권의 오래된 극본이 소장되어 있다. 박물관



▲ 왕피영 예술박물관의 피영 작품

은 24시간 개방하며 년평균 수백회의 공연을 한다. 현재까지 관광객과 연수생 등 수십만명(연인원)이 이곳을 찾았다.

최근 몇년 동안 공연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왕표 등 랑중 피영 예술가들은 피영극을 단순한 공연에서 벗어나 전시, 교육, 문화 창작이 결합된 종합 예술 장르로 확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종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새롭게 태어난 피영극 예술이 역사와 미래를 잇는 문화의 가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인민넷

력사 문화 ‘천하 명산’ 아미산



▲ 아미산의 일출운해 경관

아미산(峨眉山)은 사천성 락산시에 위치해있는데 ‘웅장하고 아름답고 기이하고 협준하고 고요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물자원, 그리고 깊은 력사적 문화적 배경으로 인류의 보배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불교의 4대 명산중의 하나로 오랜 시간을 거치며 많은 불교 유물, 사원 건축, 서화 비석 등의 력사적 유산이 축적되어있다.

아미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락산대 불은 산을 깎아 만든 미륵좌불상으로 높이가 70메터가 넘으며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바 ‘산이 한 불상이고 불상이 한 산’이라는 미명을 지니고 있다. 1996년, 아미산-락산대 불 관광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아미산은 경사가 가파르고 경치가 아름다워 ‘천하의 아름다운 산’으로 불린다. 력대 문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예를 올리며 아미산에 관한 많은 시문과 서화를 남겼다. 당나라 시인 리백은 “축나라에는 신선이 사는 산이 많지만 아미산은 그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읊었으며 현대 문호 광말악은 아미산을 ‘천하의 명산’이라고 칭했다.

아미산의 일출과 운해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금정(金顶)은 아미산의 주봉이다. 금정 위에 있는 사면십방(四面十方) 보현금상(普贤金像)은 많은 관광객들이 아미산을 찾는 필수 코스이다.

불교문화는 아미산의 주요한 종교 문화이다. 등산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불교 건축물, 조각, 회화, 사원 등을 볼 수 있다.

아미산은 풍부한 생물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원숭이가 많은 것이 이곳의 큰 특징중 하나이다. 이 원숭이들은 이미 인간과의 접촉에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먹줄을 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관광객의 가방을 빼앗기도 한다. 따라서 원숭이 구역을 방문할 때는 원숭이를 자극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인민넷

특종우표 ‘수학의 미’ 정식 발행



3월 14일은 국제 수학의 날이었다. 이날 ‘수학의 미’ 특종우표가 정식으로 발행되었다. 이 우표는 한세트가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우표의 도안 명칭은 각각 원주률, 구고정리(勾股定理), 오일러공식, 피비우스의 띠이다. 전체 우표의 액면가는 4.70원이다. 사진은 ‘수학의 미’ 특종우표.

/ 인민넷 - 조문판

